尹, 순방후 개각…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11~14일 네덜란드 순방…산업장관 안덕근·외교장관 조태열 검토
과기·노동장관 교체 가능성…법무장관 연말 원포인트 개각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후 외교·안보 라인 개편을 중심으로 한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교체 대상으로는 현재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확실시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장 등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기관들도 개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로, 주이탈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론 주스페인 대사와 주유엔 대사 등을 역임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수행한다. 후임자 인선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차 개각(기획재정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과 이날 2차 개각(방송통신위원장)에서 빠진 부처 중에서도 추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부상한 가운데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방 장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강력 권유받고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여 밖에 안 됐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동부 장관에는 노동경제학을 연구해온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과기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고, 내년 4월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연말 '원 포인트' 개각설이 나오고 있다.

후임자로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성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선배' 김홍일 지명

교육차관 오석환·보훈차관 이희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이 각각 내정됐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며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홍일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 협의체, 매주 화요일 법안 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매주 화요일 가동해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약 20분가량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박 원내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길게 논의하기 어려운 상견례 자리"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주 1회 플러스알파(+α)로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 협의체'는 매주 화요일 오후 모일 계획이다. 이 원내수석은 "다음 주 첫 모임에 양당이 10개씩 의제를 가져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기현-인요한 회동…金 "혁신안 존중해 결과물 만들것"

'희생 혁신안' 갈등 봉합될지 주목

'주류 희생' 혁신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달 17일 이후 19일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을 찾은 인 위원장에게 "요즘 날씨도 별로 안 좋고 독감도 많은데 괜찮으냐"고 먼저 안부를 물었다.

이어 "어느 혁신위보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줘서 감사드린다"며 "굉장히 좋은 혁신적 어젠다를 많이 제시하시고, 또 실천 가능한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존중하고 잘 녹여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김 대표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김 대표가 "인 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왔다. 활동을 많이 잘하신 것 같다"고 하자, 인 위원장은 "감사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언론에 공개된 초반 회동에서 김 대표는 발언 대부분을 하고 인 위원장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회동 시작 5분여만에 비공개로 전환하고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회동에는 지도부에서 이만희 당 사무총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혁신위에서 정해용 위원이 함께 자리했다.

앞서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당의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혁신위와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봐야 한다는 김 대표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탓이다.

오는 7일 혁신위 및 최고위 회의를 앞둔 만큼 이날 회동을 통해 양쪽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국힘 "野 쌍특검·3국조는 총선 결집 노린 정략"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여당을 흠집 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폭주하겠다는 정략적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 법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끌어내릴 궁리만 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탄핵 남용에 이어 특검과 국조로 또다시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 이럴 때인가"라며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예산안과 온갖 정쟁으로 밀려난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볼모 삼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폭주를 멈추라고 주문하는 민심의 경고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부를 뿐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특검에서 하게 하려는 방탄 특검법"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정쟁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간 협업생태계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권익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경제적 기회균등을 위하여 지난 1962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간 상호부조 정신의 의거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비영리 특별법인

中企협동조합 설립목적
對 정부 정책건의 등을 통해 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항하여 中企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개별 中企 경영 효율화 도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사업은 무엇인가요?
1/ 정책적 기능 中企적합업종 지정, 中企간경쟁제품 지정 등 정책 건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
2/ 경제적 기능 공동구·판매, 공동생산·물류, 공동상표, 공동R&D, 시장개척, 공제사업, 단체표준 등
3/ 사회적 기능 업계정보 공유, 교육 및 훈련, 복리후생 사업 등

광주전남 주요 中企협동조합
-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 광주전남광고물제작사업협동조합
-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 광주자동차검사정비사업협동조합
- 광주전남니트공업협동조합
-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
- 광주전남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 광주전남식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 광주전남제주기계공업협동조합
- 전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 광주전남가구공업협동조합
- 광주전남식자재협동조합
-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 전남직물공업협동조합
- 광주전남가스판매업협동조합
-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 광주전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Tel. 062-955-9559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johap.kbiz.or.kr) 참고